

팬택 I'm back... '스카이'가 하면 다르다

스카이 브랜드 'IM-100' 공개

베가 팝업 노트 후 1년7개월만에 출시
40만원대 중저가불구 성능은 프리미엄
'전대역형 블루투스 스피커'로 차별화

"I'm back!".

팬택이 새 스마트폰을 들고 돌아왔다. 팬택은 2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카이' 브랜드의 새 제품 'IM-100'을 공개했다. 팬택이 신제품을 내놓은 건 2014년

11월 출시한 '베가 팝업 노트'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팬택은 그동안 법정관리 등 벼랑 끝 위기에 몰렸고, 매각 또한 난항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가까스로 새 주인을 만나 새롭게 출발했다. IM-100의 성패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무엇보다 한때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7위까지 올라섰던 팬택의 부활을 이룰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40만원대 중저가 시장 공략

IM-100은 다음주부터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출시될 예정. 출고가는 40만원 중반대로 중저가이지만 최근 트렌드에 맞춰 프리미엄 제품 못지않은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1.4GHz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5.15인치 풀HD디스플레이를 달았다. 2GB RAM과 3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했다.

카메라는 전면 500만, 후면 1300만 화소다. 오디오 성능도 강력하다. 쿼터 오디오 칩인 코

덱칩(WCD9326)을 탑재해 음질이 뛰어나고, APT-X 코덱을 지원해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피커에서 CD 수준의 고음질 음원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게 팬택 측의 설명이다. 그 밖에 7mm 대 두께와 130g의 무게로 한손 사용성을 강화했으며, 무선충전도 지원한다.

사용자환경(UI)을 강화하는 아날로그 감성의 '휠키'를 적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100단계의 볼륨 조절과 어느 화면에서나 음악을 실행할 수 있는 '원 플레이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카메라에서도 휠키를 돌려 타이머 촬영을 할 수 있다.

●스피커 '스톤'은 차별 포인트

IM-100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제품과 함께 제공하는 '스톤'이다. 저음역에서 고음역까지 한 대로 재생하는 전대역형 블루투스 스피커다.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손색없는 디자인은 물론 뛰어난 음량과 음질을 갖췄다. 전용 앱과

연동해 음악재생, 무드램프 등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고려했다. 단일색상부터 촛불, 오로라, 파도, 반딧불 등과 같은 다양한 무드 패턴을 지원하고, 금속 휠키도 적용했다. 2600mAh 배터리를 내장해 10시간 이상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외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용자를 반겨주는 '웰컴라이팅', 음악재생 중인 단말을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는 '이지 페어링', 출근시간 또는 약속시간에 맞춰 30분전부터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시그널' 등 스마트폰과 연동한 다양한 부가 기능도 제공한다. IM-100을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무선충전기 역할도 한다.

업계에선 스카이만의 세련된 디자인과 휠키, 스톤이라는 차별화 포인트가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나 애플 등 기존 강자들까지 중저가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병권 기자 dionys@donga.com

팬택이 '스카이' 브랜드의 새 제품 'IM-100'을 공개했다. 40만원대 중저가 제품이지만 강력한 오디오 성능과 아날로그 감성의 휠키 적용, 무선 충전 및 스피커 기능을 갖춘 '스톤'을 함께 제공하는 등 매력적인 요소들로 가득하다.

사진제공 | 팬택

BMW 미래재단 '넥스트 그린' 환경부 인증

초등학생 대상 다각적 관점 접근
환경·지속가능한 발전 이해 도와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넥스트 그린(NEXT GREEN)-환경교육'이 환경 부로부터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넥스트 그린-환경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쓰레기, 물, 생물의 다양성, 에너지의 총 4가지 주제에 대해 인문사회, 자연과학, 철학 등 다각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 결론을 도출하게끔 유도한다. 이를 통해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책임있는 가치관 확립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친환경 모형 자동차 만들기, 친환경 에너지 교육 등 기존 주니어 캠퍼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에너지 교육과정과 연계해 더욱 심도 깊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환경 전문 교육 프로그램 '넥스트 그린(NEXT GREEN)-환경교육'이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나 아동복지시설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1회 80분씩 무료로 진행된다.

사진제공 | BMW코리아

BMW 코리아 미래재단 김효준 이사장은 "환경 문제가 중요한 속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인증을 받게 되어 더욱 뜻 깊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양질의 환경교육을 받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4일부터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실시되는 '넥스트 그린-환경교육'은 초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1회 80분씩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BMW 주니어 캠퍼스 사무국(1688-9338)으로 문의 후 사전 신청하면 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쉐보레에서 사고가 급증하는 장마철 안전운전 요령을 제안했다. 타이어 점검과 속도 줄이기, 안전거리 확보, 전조등 켜기 등 기본 수칙만 잘 준수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사진제공 | 쉐보레

“장마철, 타이어 마모상태·공기압부터 점검하세요”

■ 빗길 안전운전 노하우

직선주로서 수막현상시 속도 줄여야
'앞 유리 에어컨·뒤쪽 열선' 시야 확보

여름 장마철이 시작됐다.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교통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한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안전 운전을 위한 기본적인 노하우를 살펴봤다.

●타이어 점검은 필수

장마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어 점검이다. 빗길에서 운전할 때에는 타이어의 배수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빗물이 타이어 트레드 사이의 홈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드가 닳으면 배수 성능도 떨어지게 된다. 배수 성능 저하는 수막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타이어를 제때 교환해 장마철 운전에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타이어의 마모 정도는 타이어 옆 부분에 있는 삼각형(▲) 표시로 확인할 수 있다. 삼각형(▲) 표시

가 가리키는 위쪽을 살펴보면 홈 속에 돌출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마모 한계를 나타낸다. 삼각형 표시가 마모 한계(1.6mm)까지 다다랐다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보다 10% 가량 높여 배수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막현상 대처법

일반적으로 시속 80km 이상의 속도에서 수막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 성능 저하는 수막현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만약 자동차가 직선주로를 달릴 때 수막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속도를 낮춰줘야 한다. 속도가 떨어지면서 타이어와 지면이 다시 접지하게 되고 접지력을 회복하게 된다. 수막현상이 발생했을 때 핸들을 돌리게 되면 차가 미끄러지면서 정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수막현상이 일어났을 때 브레이크를 반드시 밟아야 할 상황이라면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으면서, 차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코너링 중에 뒤틀리거나 수막현상이 발생하면서 오버 스티

어링이 발생하게 되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다가 접지력을 회복한 후 반대방향으로 재빨리 핸들을 돌려 차를 바로 잡는다.

●장마철, 시야확보가 우선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에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시야확보를 위해서는 와이퍼와 차량의 유리상태 점검이 필수다. 와이퍼의 경우, 블레이드 부분이 노후되면 작동 시에 빗물을 잘 닦아내지 못하고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여분의 와이퍼를 상시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다. 또한 차량의 유리에 발수코팅을 해주거나, 발수기능이 있는 워셔액을 준비하면 시야확보에 도움이 된다.

●안전거리는 넉넉하게, 페달은 천천히

장마철에는 앞 뒤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평소의 두 배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20~50% 정도 더 줄여야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페달 조작은 부드럽게 한다. 급출발과 급제동은 미끄러짐을 유

발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코너에서는 스티어링휠을 부드럽게 돌리고 페달조작은 최소화하는 것이 미끄러짐 방지에 좋다.

●전조등은 항상 켜라

우천시 안전을 위해 전조등을 항상 켜고 다니는 것이 좋다.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빗속에서 상대 차량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효과도 있다. 햇빛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지는 오토 라이트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면 빗길에서 편리하다.

●장마철엔 에어컨도 스마트하게

장마철엔 에어컨 조작법도 달라진다. 외부와의 온도차로 인한 김 서림을 방지하기 위해 앞 유리 쪽으로 에어컨 바람이 나오도록 설정하고, 뒤쪽 유리 열선을 가동해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또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기 5분전에는 에어컨을 끄고 송풍팬을 가동해 에어컨 내부에 맺혀있는 수 있는 습기를 말려주는 것이 좋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이 후원하는 '고상돈&콜핑 데날리 원정대'가 북미 최고봉 데날리 등정에 성공했다. 콜핑은 등정에 필요한 의류를 비롯해 텐트, 배낭, 압박장비 등 전 품목을 지원했다.

사진제공 | 콜핑

고상돈&콜핑 데날리원정대, 북미 최고봉 등정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이 후원하는 '고상돈&콜핑 데날리 원정대'가 북미 최고봉 데날리 등정에 성공했다.

원정대는 지난 5월 30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알래스카주 와실라로 출국했으며 6월 4일부터 본격적인 등반을 시작했다. 등반 14일 쯤인 18일 정상에 등정한 원정대는 24일 비행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고상돈&콜핑 데날리 원정대는 콜핑 박만영 회장과 박훈규 원정단장, 김태훈 원정대장 및 대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미국 알래스카 주에 있는 데날리는 높이 6194m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콜핑은 등정에 필요한 의류를 비롯해 텐트, 배낭, 압박장비 등 전 품목을 지원했다.

콜핑 박만영 회장은 "이번 원정대는 콜핑 창립 33주년과 고상돈 대장의 넋을 기리는 의미에서 기획된 만큼 무사 등정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콜핑 원정대를 통해 국내 등산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